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복·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23일(목) 제 3024호



김관영 도지사 이피캠프(주)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프(주) 본사를 방문해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 및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전북도>

##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道 성장 '날개'로

전북도, 을사년에도 기업유치와 기 투자기업 지원에 올인  
 김 지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기업 찾아 투자이행 점검  
 中 심천 기업인과 상해 한국상회장 초청 전북 투자 제안  
 기업 유치는 물론 既 투자기업 투자이행도 적극 추진

전북자치도가 2025년에는 기업 유치와 함께 그동안 유치해 온 기업의 실질적 투자이행과 원활한 기업 운영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프(주) 본사를 방문해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같은 날 중국 이차전지 제조기업 SINVO의 빈싱 대표와 상해 한국상회 이준용 회장을 초청해 전북 투자환경을 소개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피캠프(주)는 2007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 전문기업으로, 2023년 새만금산단에 2공장 투자를 완료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해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피캠프(주)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새만금의 선도적 투자 기업으로서 약속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피캠프(주)의 성공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도지사는 전북을 방문한 중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 SINVO의 빈싱 대표,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 등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

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며, 24개 기업이 이미 입주하거나 협약을 체결했다.  
 SINVO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기업 전문기업으로, 감소성과 중산 지역에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빈싱 대표는 전북의 투자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2025년을 기업유치와 투자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투자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 전북자치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전북자치도 복지·보건 분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응과 일자리 확대 공공의료도 강화  
 지역 특성 반영 '전북형 지역안전결정 공공의료' 추진

전북자치도는 올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를 비전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 복지여성보건의료 예산은 총 4조846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 8기 4년 차인 올해는 핵심과제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대상별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응 및 일자리 확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저출생 대응과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삶 지원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삶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다 든든히 보살피기 위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동안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청년층·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하며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을 조성한다. 장애인구 고령화,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증가 등 장애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최대 30일 이내) 내에서 긴급돌봄(200명)을 제공한다.

초고령화, 1인가구, 다문화가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춰 분야별 복지수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에 부응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각종 폭력피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내 필수요료를 제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전북형 지역안전결정 공공의료를 추진해나간다.  
 고령산모와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출산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와 임신부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김은지 기자

## 도의회, 공무원에 '30억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의원 조사

지난달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 강요 의혹  
 '예산 삭감' 등 발언 일부 확인...윤리위 회부 가능성 커져

전북자치도의의회가 박용근 도의원(장수)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30억대 사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점도 일정 부분 확인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도의회 총무과는 박 의원의 사업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의혹은 박 의원이 지난달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FECO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 전력관리시스템이다. 박 의원의 사무실에는 관련 업자도 함께 있었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는 게 도청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도의회는 당시 박 의원의 사무실로 불려 간 일부 도청 공무원을 조사해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내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 삭감을 운운하겠느냐"며 "각

종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총무과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윤리전문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송부,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군산 3)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안이 언론 보도된 내용과 비슷하지만 박 의원은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지난 16일 입장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을 도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 기자

1997, 무주·전주 동계U대회의 환희  
 2014, 못다 이룬 동계 올림픽의 꿈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로 이어갑시다**

전북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전북이니까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올림픽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도시끼리 연대가 가능합니다.  
 고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올림픽!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66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전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99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협력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인프라 관계기관 4차 회의...국가중합실증 연구단지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 인프라 10개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예산 협력사업 발굴 및 에너지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트립트 정부 2기 출범과 같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점검하며 국가예산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다

지기 위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왔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가 구축되며,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혁신 인프라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본격 운영 도, RE100 실현 민·산·학·연·관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전북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계획 및 주요 아젠다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2024년 5월 출범 이후 에너지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4개 분야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혁신적인 에너지솔루션 개발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2024년 말 각 분야의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와 실행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 분야의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트립트 정부 출범 등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 20개 신규 참여기관에 가입증서를 전달하며

RE10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확대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앞으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참여기관 확대(100개 이상) ▲대선-총선 공약사업 발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로 사업화 기술개발 등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전북자치도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역 경제와 에너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RE100 달성을 위한 글로벌 정부 출범 등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 20개 신규 참여기관에 가입증서를 전달하며

/김은지 기자

# 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유관 기관 대상 성과공유회 개최

## 28개 농생명혁신기관 등 참석, 우수발굴과제 8건 선정·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특강 진행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라승용, 김중훈)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도내 28개 농생명혁신기관과 대학 등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위원 간의 2024년 추진실적 공유, 전문가 특강, 우수 기획과제 보고 등이

진행됐다.

2024년 위원회 각 분야에서는(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새만금농생명, 반려동물·발산업 분과) 총 15번의 회의를 진행해 23건의 기획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8건의 우수 기획과제(총 사업비 1천400억원)를 선정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첨단 영양류 생명연구지원 보편연구 인프라 구축(5년, 200억) 및 식품 속성 DX(Digital Transformation) 기반 식품산

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 사업(5년, 115억)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반영해 대응할 예정이며, 소규모 스마트 식품 제조 모델링 기반 구축사업(5년, 80억)은 전북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현 원장은 'R&D로 펼쳐지는 농식품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미래 농식품 기술 선점의 중요성과 전북 농생명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방안 개편을 계획 중이다"며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술 개발과 유관기관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신영대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경조사도 유급휴가로”



신영대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돼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필수 가치"라며 "그러나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문승우 도의장, KGM 커머셜 현장방문...일자리사업 도약 기대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2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KG 모빌리티 커머셜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전기버스 생산 및 판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본격적인 신차종 소형버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알리는 KGM 커머셜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장은 이날 수출용 제품을 볼 수 있는 제1공정 생산라인과 자체 생

산 차량의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관리동을 각각 둘러보며 KGM 커머셜에서 생산되는 차량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문 의장은 업체 완성 차량인 9M급 중형 전기버스를 직접 시승 운전하며 주행 성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품성을 체험했다.

문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보니 우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자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9M급 전기버스의 계약 물량 증대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활기

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장은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도 희망이 보이는 만큼 도의회도 이들 기업이 비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GM 커머셜은 지난 2023년 11월 에디슨모터스 인수 후 지난해 1월 전기차 협업기반을 구축한 뒤 9M급 중형버스 생산 및 판매 및 신차종 7M 소형버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배수개선 사업예산 159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2일 올해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159억3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계속 사업비로는 정읍·고창 11 지구, 평령·석우·용흥·백운 3·평령 2 지구, △고창·강남·신림·신평·송산·해룡지구에 25년 국가예산 155억(총사업비 1천103 억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지구로는 정읍 오금지구(사업비 120억), 고창 성내지구(사업비 90억), 고창 우평지구(사업비 64억), 고창 무장지구(사업비 56억) 등 4곳이 지정됐다. 올해 국가예산 4억3천6백만원이 투입돼 기본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천448ha의 정읍·고창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 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

를 겪었던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사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은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사업들이 문 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 제2025-9호

### 순창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동일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0.

순창군

- 소규모(3ha)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해제 계획(안)
  -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일원
  - 나. 목 적 :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 다. 해제사유 : 해당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절단된 3ha 이하 자부리 농지 해제
  - 라. 근 거 : 「농지법」 제31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마. 해제 계획(안) 내역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113,574㎡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6. ~ 2025. 2. 7.(22일간)
-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열람 방법
  - 필지조서 열람 : 홈페이지 열람 [http://www.sunchang.go.kr/고시/공고/입법]
  - 도면열람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열람만 가능
- 의견 제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에 서면(우편 가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지담당자(☎ 063-650-51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해제 대상 범위가 방대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우므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 최종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완산방커, 문화관광시설로...52년만에 시민 품으로

10개 콘텐츠룸 등 15개 공간으로 구성, 색다른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기대...2월 5일 개방 예정

과거 총무시설로 사용됐던 전주시 완산동 완산방커가 문화의 옷을 입고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전주시는 문화관광시설인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이하 완산방커)로 재탄생한 완산방커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완산방커는 과거 전시 상황을 대비해 군·경찰·도 지휘소가 들어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1973년에 조성된 방공형 방공호로,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게이미컬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공호로 사용되던 완산방커는 지난 2005년 전북특별자치도청이 효자동으로 이전한 뒤 용도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고구마 저장고 등으로 활용되는 등 버려진 시설로 남겨져 있다.

이에 시는 완산방커의 문화적 보존 가치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문화관광시설로 재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 계획 수립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 지원

한 것을 시작으로 완산방커의 활용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폐쇄된 방공호와 연결된 멀티버스를 비밀요원(관람객)이 탐험한다'는 주제의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지난 2023년부터 기반시설 조성 및 콘텐츠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10개의 콘텐츠룸 등 총 15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 콘텐츠인 '차원의 문'의 경우 LED 모듈과 거울을 활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빛의 조화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 지난 20일 부터 22일까지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 직원, 완산동 지역 학생(완산초·관지중)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을



전주시는 문화관광시설인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로 재탄생한 완산방커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완료한 후 오는 2월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오는 2월 5일부터는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완산방커는 전주시가 직영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1만 원 ▲청소년(13세~18세)8000원 ▲어린이(4세~12세)5000원이며,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이 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전주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정연구팀 덕진공원-건지산사시점제시

정책브리프 제56호 발간...지속가능 관광 발전 전략 담아

전주시정연구팀(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덕진공원-건지산 일대의 방문객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56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56호'는 '통신 빅데이터 및 방문객 실태조사'를 활용한 덕진공원-건지산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과 시사점'을 주제로 덕진공원과 전주동물원, 어린이창의체험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의 통신사 빅데이터(2024년 10월~2025년 9월)를 분석하고, 지난해 10월 전주페스타 기간 중 덕진공원-건지산 일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또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을 찾는 이유에 대해 ▲휴식 및 산책 ▲관광명소·공공 관람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자가용을 이용한 방문객(전주시민 65.7%, 전주시 외 거주자 81.2%)의 비율이 높아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관광객과 전주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 개발 ▲교통·이동 및 관광편의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검찰,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65)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 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해당 공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한 배경에 사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선고 기일을 내년 19일로 지정했다.

/정음=김정인 기자

# 전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나서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에 3년간 연 3% 이자지원으로 부담 완화

올해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나선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복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복전주법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진대권 미소금융 전복전주법인 이사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율 3년간 3%씩 이차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전복전주법인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실행에 나서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기존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용등급 6~10등급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복전

주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협약 체결 이후 즉시 본격적인 대출 실행 및 이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연 3%를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대출(개인 한도 2,000만 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복전주법인(063-285-40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총 170억 규모의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4,000여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靴)대출자에 대해 8년간 3% 이차 지원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경영 회복의 기회를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전주시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미소금융 전복전주법인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명절 연휴 기간 빈틈 없는 '응급진료체계' 가동

7개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335개·약국 235개 문 열어...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 설치·운영도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 및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차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자이플러스병원 등 전주지역 7개 응급의료기관과, 335개 병·의원, 235개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시민들의 의료공백 및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7개 응급의료기관 ▲335개 병·의원 ▲심야약국 3곳(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을 포함한 235개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3곳(대차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맞이어린이청소년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의 교대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설명절 연휴 기간 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을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감염병 보고 및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설 명절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의 '설명절 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집중 사업 '해피하우스' 추진

전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특별 안전 점검과 연중 각종 시설물(위생, 가스, 전기 등) 안전 점검 및 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겨울철에 취약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중위소득 6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개별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가스 점검을 통해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부로 노출된 수도 배관의 동파 방지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9년 10월 인후 2동 지역이 전국 최초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시민 만족도를 감안해 현재 총 3개의 해피하우스 센터(완산·인후·팔복)를 운영하고 있다.

해피하우스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 내 건축·위생·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와 수리에 필요한 간단한 공구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만2367세대를 대상으로 총 21만7506건의 주택 점검 및 보수를 실시했다. 또, 5,073건의 공구 대여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해피하우스 서비스는 주소지 인근 해



해피하우스센터(인후센터 1577-2589, 완산센터 1577-6514, 팔복센터 211-7740)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및 간부 공무원들, 복지시설 방문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시설 관계자와 생활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시는 22일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선덕효심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 생활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시는 종사자와 생활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은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맞춰 나가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 전통식품 판로 개척 맞춤형 지원

## 10억 원 규모 지원사업 추진...도내 우수 전통식품 기업 20개사 모집 판로 개척

### 맞춤형 지원·마케팅 전략·전문가 컨설팅 제공해 효과적 성장 도모

전북자치도는 도내 전통식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전통식품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판로와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맞춤형 개별지원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제공해 왔다. 올해도 20개 업체를 선정해 제품개발, 디자인 패키지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국내 대규모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1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8회에 걸쳐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고 약 17억7천2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3억7

천8백만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북 간부수퍼, 혼밥·혼술상회 등 전북만의 특색있는 공동판매관을 구성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 전북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참여 기업 모집은 오는 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공고는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 업체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20개사를 선정하고 1:1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내 전통식품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김관영 지사, 정읍 전통시장서 설명절 장보기

###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활동 및 온고을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김관영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와 함께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장보기 행사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사과, 닭고기 등 주요 성수품들을 구입하면서 도민들의 겪는 물가 부담을 직접 체험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나눴다.

이날 장보기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읍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참여해 명절을 앞둔 샘고을시장에 활기를 띄게 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흥구 상인회장은 "샘고을 시장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풍성한 볼거리를 경험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기 바란다"면서 "전통시장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나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풍성한 볼거리를 경험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기 바란다"면서 "전통시장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나눴다.

이날 장보기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읍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참여해 명절을 앞둔 샘고을시장에 활기를 띄게 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흥구 상인회장은 "샘고을 시장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풍성한 볼거리를 경험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기 바란다"면서 "전통시장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나눴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나선다

##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에 3년간 연 3% 이자지원으로 부담 완화

올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나선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진대권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 이사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3년간 3%씩 이차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실행에 나서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기존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용등급 6~10등급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협약 체결 이후 즉시 본격적인 대출 실행 및 이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연 3%를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대출(개인 한도 2,000만 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063-285-40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총 1700억 규모의 전주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4,000여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예)대출자에 대해 8년간 3% 이차 지원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희망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민생지원금 미끼 스미싱 주의보 발령

### 시 관련 사례 수사기관에 고발 및 시민 홍보 강화 예정

전주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후 무작위로 유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시민들이 현혹되기 쉬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인터넷 블로그·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사례들이 발견돼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우려 등 시민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거짓 정보를 게재한 블로그·카페의 경우 민생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인터넷 또는 문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를 차단

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무분별한 온라인상 유통이나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인터넷 허위 글과 스미싱이 연계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새만금 식품허브, 道와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추진...전략회의 개최

##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풀무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김 양식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 모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1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무원과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주관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풀무원의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확대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김 양식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육상 김 양식 기술과 표준매뉴얼 개발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공모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1일 세계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무원과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함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작곡과 준공 등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윤 풀무원 상임자문(전(前) 기술연구원장)은 "풀무원은 2021년 세계 최초로 김 부문에서 'ASC-MSC' 인증과 'ASCoC'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면서 미래 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자신했다. 또한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만금에서 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육상 김 양식 상생모델을 만들어 어업인이 김을 양식하고, 풀무원은 이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풀무원과 협력해 온 지자체 관계자들도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준호 기자

## LX, 관리자 워크숍 개최...경영 혁신·위기 돌파 의지 다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22일 국토정보교육원에서 분사 임원과 간부,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 관리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LX 위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어명소 사장의 특강과 전문가 특강, 토론 등으로 마련됐다.

이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혁신 노력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분임토의에서는 LX 미래에 대한 고민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LX공사는 이날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경영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은 'LX 위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어명소 사장의 특강과 전문가 특강, 토론 등으로 마련됐다.

이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혁신 노력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분임토의에서는 LX 미래에 대한 고민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LX공사는 이날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경영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장보기 나눔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전북중기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및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21일 전주 모래내시장과 22일 완주 삼례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8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의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비 촉진을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

용해 지역 특산물, 과일 등을 구매한 뒤 사회복지시설 국제재활원(완주군 소재)에 방문해 구입한 물품들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25년 2월10일까지)한다.

또한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최준호 기자

## 전북은행, 다문화아동들 겨울방학캠프 후원금 1억 원 지원

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다문화 아동을 위한 '2025 다(다)문화로 다(다)문화 캠프 다다캠프' 지원 후원금(1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전주지역 다문화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와 전북은행은 전주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35명과 중학생 35명 등 총 7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이날 말 점심시에 소재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갖

여름방학을 맞은 전주지역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 지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7월에도

/김영태 기자

# 전북교원단체, 교육감 당선무효형 놓고 의견 '분분'

전교조 전북지부·전북교육연대 “죄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 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교육 정책 혼란 우려”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 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전북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2심 결과가 나왔다”며 “34명의 초·중·고교 교원을 선 임한 결과 임기 절반이 넘는 시간 끌기를 했지만 결국 드러난 사실을 1심과 다른 ‘유죄’ 선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폭력 기해자를 교육감으

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 놓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 했다.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도 성명을 통해 “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300 만 원보다 많은 형을 법원이 선고한 것 은 그만큼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반 증”이라며 “전북교육연대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와

학교폭력에도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동료 교수를 폭행하 고도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 만했으며, 당선된 후에도 뻔뻔하게 행 동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 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 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 총)와 전북교사노조의 입장은 달랐다.

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큰 500만 원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 한 우려가 크다”며 “전북교총은 대법원 이 실제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 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육감 이라는 위치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적 자 질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 나 이러한 사법 리스크로 인하여 전북 의 학력을 신장하고 무너진 교권을 확 립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서 교육감 “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당선 무효형에 전북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송구 입장문 발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항 소심 선고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 감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 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전날 2심 판결 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 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제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

다.

서 교육감은 “또한 앞으로도 추후 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고법 전주재 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 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성민 기자

# 새만금희망태양광,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금 3억 기탁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목적... 도내 중·고생 중 학교장 추천 통해 600명 선발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지난 21일, 가정형편이 어려 운 도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새만금희망태양광으로부터 3억원의 기탁금을 전달 받았다.

이번 기탁금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1 구역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도민에 게 환원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25일 기탁식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탁금 3 억원은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희망태양

광’ 특별지정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도내 중·고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600명을 각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 지원 할 예정이다.

이현웅 원장은 “장학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 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소민 기자

## 김정기 전주교육장, 2036 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청교육장이 지난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 다.



김정기 교육장은 서 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이날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기반인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교육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 픽 유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최 고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들을 우리 학생 들과 도민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 는 모습과 경기장 위 감동의 순간을 현장 가까이에서 느낀 경험은 전북특별자치 도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심과 지지로 더 활기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일규 군산교육지원 청 교육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 장, 민완성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장을 지목했다.

/최성민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순조롭게 추진’

2024년 12월말 기준 공약이행률 79.1%... 목표율 64.9% 대비 121.9% 초과 달성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 면 2024년 12월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 의 공약이행률은 79.1%로 지난해 목표 율 64.9% 대비 121.9%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미래 77.2%, 책임 74.2%, 안전 91.9%, 자치 72.2%, 협력 86.9%, 공

동체 78.3%의 이행률을 보였다.

6대 분야 모두 지난해 목표율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2년 반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176개 공약이행 세 부사업 중 완료 71개, 정상 추진 104개, 미도래 1개 등이다.

주요 완료 사업은 ▲교육지원청 내 학

력지원센터 운영 ▲전북 에듀케어 지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 ▲학교업 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공 약관리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 로 구성해 평가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누리집 보완으로 직관성을 향상해 도민들이 쉽게 공약이

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사업 본연의 목 표를 달성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가족과 도 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북교 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김동명 박사, 세계적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취업



전북대학교 김동 명 박사(전자정보공 학부 통신 회로 및 시스템 설계 연구 실, 지도교수 임동 구)(사진)가 세계적 인 반도체 대기업인 브로드컴에 취업하 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랩스 기업인 브로드컴은 글로 벌 ASIC(주문형 반도체) 대표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가총액 1조 달러 를 돌파했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 체 TSMC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

이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8위를 차지 한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이다.

김 박사는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을 밟으며 CMOS RF 및 아날로그 송수 신기 회로 설계 연구에 매진해왔다.

또한 제 26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 대상 회로설계 분야 동상을 수여하는 등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브로 드컴 RFIC 개발 부서에 연구원으로 최 종 선발됐다.

/최성민 기자

#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연수 실시... 결산업무 담당자 60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 석)은 지난 22일 분청과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결산업무 담당자 60여 명 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연 수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 춰 결산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 침 전달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 용 교육 ▲결산서 작성 요령 안내 등 결

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내 용으로 진행됐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은 4~5월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 는 6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승인 심사

로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결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 탄소중립 가정에서

### 에너지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 수송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하기

### 소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자원순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 가구에 명절차레용품 전달

사회복지법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설 명절을 맞이해 22일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진안 관내 저소득가구에 명절차레용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 가구들은 11개 읍·면 지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64가구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전달된 차레용품은 소고기, 떡국떡, 사골곰탕, 조기, 사과, 배, 계란, 만두, 김, 부침개로 떡국 재료와 차레를 지내기 위한 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에는 협의회 읍면 지회장과 봉사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진 회장은 "이번 설명절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립감과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공무원 노조, 장수군에 성금 2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전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장수군지부(지부장 윤동수)가 22일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지난 한누리전당에서 진행된 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윤동수 지부장은 "행정 지원과 민원 처리, 시설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제 수행지원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탁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성금인 만큼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장수군 공무원 노조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정읍시공직사, 제주항공 특별모금 2천만원 전달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자자들에 따뜻한 연대 메시지 전해...기부 문화 확산 기여

정읍시 공직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모금 기부 전달식이 지난 21일 진행됐다. 시 공직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모금에 나서며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별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읍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 10일까지 공직자 특별모금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정읍시 공직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모금 기부 전달식이 지난 21일 진행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 2019만 5000원이 모금됐다. 기부금은 이학수 시장이 대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모금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직자의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 초등학교 남매 '미라클 리딩 1000권' 도전 성공

### 영어책 1천권 읽기 성공, 다음 목표는 2천권...모현도서관서 성공 인증서 수여식 열여

익산의 한 초등학교 남매가 영어책 1,000권을 읽는 도전에 성공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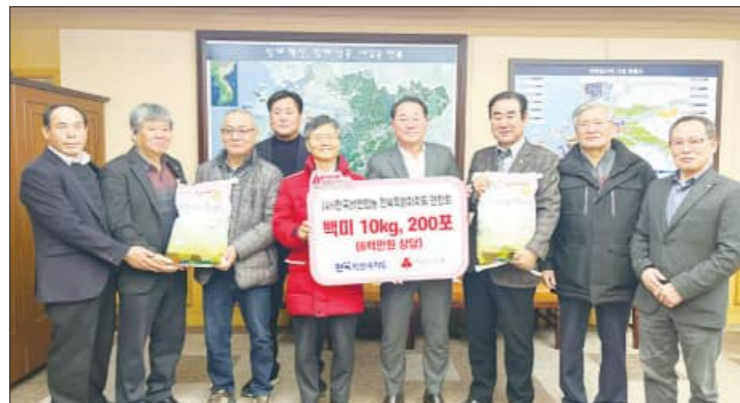
익산시는 22일 모현도서관에서 '미라클 리딩 1000권(MIRACLE READING 1000BOOKS)' 성공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익산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영어책을 읽는 '미라클 리딩 1000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라클 리딩 1000

권은 영미권 도서관이 유아의 책 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진행 중인 교육의 일환이다.

익산에서 처음 배출된 1,000권 달성자인 운산·서아 남매는 매일 같이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읽고 대출해가며 도장을 찍는 열정과 끈기를 보였다. 앞으로 2,000권 돌파를 목표로 영어책 읽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 600만 원 상당 쌀 기부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쌀전업농 전북자치도연합회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손길로 쌀 200포(10kg), 6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 이원엽 수석 부회장, 이우식 사업 부회장, 그리고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경소민 기자



### 남원시 송동면, 뱀의 해 맞아 끝 없는 기부행렬

남원시 송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뱀의 해를 맞이하여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훈훈한 기부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나눔을 실천하는 이복기(73세)씨는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쌀 20kg 60포(400만원 상당)를 기부하여 21년 동안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남원시 송동면 의용소방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파로 인해 주변의 많은 취약계층이 추위

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송동면 의용소방대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60만원을 기탁했다.

노일환 송동면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이어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겨울이 유독 힘든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강화하여 온정을 담아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솔가솔불갈비 김제점, 어르신들 위한 갈비탕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솔가솔불갈비(대표 김성원)가 지난 21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갈비탕을 지원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식사 지원 행사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김성원 대표와 솔가솔불갈비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갈비탕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한 끼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24년에도 총 6회에 걸쳐 150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후원을 진행해 지역사랑을 실천해왔으며,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식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솔가솔불갈비 김제점의 꾸준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나눔의 선순환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무주양수발전소, 쌀 4백 포대 지정 기탁...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무주양수발전소가 지난 22일 무주읍 나르미 사업단에서 쌀 4백 포대(1포대 10kg)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따르면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기탁했다.

양해연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에 쌀을 보내게 됐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무주양수발전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완주군 동상면 주민 이순호씨, 200만 원 기부...3년째 나눔 실천

완주군 동상면 산천마을 주민 이순호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순호씨는 지난 2023년에도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2024년에는 백미 1,000kg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온정을 보내고 있다.

전달받은 후원금 200만 원은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설 명절 먹거리로 구입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순호씨는 "동상면의 모든 주민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나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정식 공동위원장은 "3년째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동상면의 이웃들에게 온기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 온기를 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감기와 독감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1.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 높이기
2. 손 깨끗이 씻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 코, 입을 비비지 않기
3.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 60개월 미만의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매년 독감 예방 접종 잘 챙기기



〈一事一言〉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2)

유시민  
작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의 일부 배신자들과 함께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탄핵했다. 경찰·검찰·공수처·법원마저 장악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며 관저에 쳐들어 왔다.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윤석열은 진지하다. 미치지 않았다.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옹호하는 국립당 정치인과 변호사·종교인·언론인·유튜버도 머리에 꽃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 지난 며칠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과천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체포 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을 순회하면서 시위를 벌인 태극기 부대원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서부지법 청사를 때려 부셨던 청년들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특이할 뿐이다.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로 추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넷 가운데 하나는 그들과 생각이 비슷하다. 국민의 25퍼센트를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보통 수준의 사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허구를 그들은 사실로 여긴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 꾸며낸 이야기, 사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만든 가상현실과 실제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현실과 무관한 망상을 올바른 사상이라 확신한

다. 그런 망상을 전파하는 자를 지도자로 모시면서 돈과 열정을 바친다.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많은 적든,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산다.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는 제법 그럴듯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정치학 박사, 목사, 언론인 같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유튜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도 나온다.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알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윤석열이 벌인 모든 일을 한 줄에 꿰듯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과 그들은 모두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 그들 스스로는 ‘자유 우파’라고 하고, 관찰자인 나는 ‘망상(妄想) 공동체’로 간주하는 정치적 진영이다.

자료가 많은데 아주 괜찮은 것 하나를 전광훈TV에서 얻었다. 1월 16일 업로드한 ‘광화문 전만 동원을 위한 5대 유튜브 특별 생방송’을 보다가 그 자료를 발견했다. 전광훈이 사회를 맡고 고성국, 이봉규, 신의한수 신혜식, 펜앤드마이크TV의 내가 알지 못하는 기자, 그렇게 다섯 명이 한 대담이었다. 유튜브 썸네일에 여러 격문이 걸려 있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협해졌다.’ ‘이재명에 속아 북한처럼 될 것인가?’ ‘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2025년 1월 18일(토) 총궐기로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전광훈TV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때

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그 영상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을 영상이다. 최근 극우 유튜브 방송들은 비슷한 영상을 수없이 송출했다.

굳이 시청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 핵심 메시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상은 ‘브금’과 화면 특수효과 때문에 문자 텍스트보다 훨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다. 흑백 자료화면에 맥락을 허위로 조작한 문재인·이재명의 발언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이어 붙여 마치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에 놓인 것 같은 망상을 전파하는 그 영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충돌한다. 촛불시위는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종전협정,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태극기 세력은 문재인·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축결, 자유 통일을 주장한다. 북한 간첩들이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고 빌딩에 올라가 촛불시위대를 저격한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총을 빼앗아 경찰을 공격한다. 북한이 전국에 구축해 둔 지하 조직이 좌익 성향 국민을 선동해 전국 동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 백만 명이 가세한다. 그들은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하고 내전을 일으킨다. 북한 특수부대가 걸잡

을 수 없이 혼란해진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좌경화된 국민은 김정 은을 환영해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 1946년 대구 폭동에서 시작해 제주 4.3, 여순반란, 5.16광주로 이어진 북한의 공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자유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천만 명은 보트 피랍이 되어 일본으로 탈출한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으면 벌써 일어났을 일이다. 일본 국회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촛불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찢었던 김진성이 그런 사람이었다.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다. 언론의 펜으로 죽이지 못했고 김진성의 칼로 죽이지 못했으며 한동훈의 법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거하려고 윤석열은 특전사와 HID의 무장 병력을 동원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거짓말·책임전가 급급한 윤석열의 비루함

구속 수감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 재판소에 출석해 한 발언들을 지켜보면 충격과 분노를 넘어 인간에 대한 연민까지 느끼게 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한다면 국가는 들어킬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빠질 것이다.

12.3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에게 도끼와 총을 사용해서라도 국회의원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분명한 내란 행위로,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였다. 다행히도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막아낸 것은 불법 명령을 거부한 헌정 지휘관들과 이를 저지한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며 “유혈 사태를 막은 것은 나의 공로”라는 식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뻔뻔한 행태다.

윤석열은 또한 계엄 포고령이 국방장관 김용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상목 재경부 장관에게도 비상입법기구 운영 예산을 확보하라는 문건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드러난 증거와 증언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라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며 거부권을 남발했고,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검

찰과 방심위를 동원해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제 살길 찾겠다고 벌이는 위선과 가식이 집으로 비루해 보여 민망하다.

윤석열의 실정과 악행은 그를 탄핵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내란을 선동하는 망상적 행동을 보였다.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히 그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미안함을커녕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법과 도덕을 경시하는 그의 본질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난 후 윤석열은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병원으로 이동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사전에 법무부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적인 행동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의 행동은 국민적 분노만 불러일으킨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극대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그는 그들 엄중히 심판받고, 이 무법천지 난장판을 끝장내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추상과 같은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방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홍성동헌**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궁궐, 관아  
지정일 - 1976년 4월 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흥덕면 동헌길 4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윤문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
|--------------------|--------------------|--------------------|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김관춘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중양지국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인주지국 010-8640-6855 |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
| 팔복지국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정수지국 010-8626-6049 |
| 송천지국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돌멩이 하나 /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난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고자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고자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쯤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새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이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것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1973년 구속되어 전남대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젯터미’ 등 7편의 시를 발표했다. 1978년 남민전에 가입,

활동하다 197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 광주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등을 출간했다.

아름다운 자연 소중히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JBT 전북도민을 위한 신문

# 2025년 설 명절 연휴, 군산에서 즐길 곳 어디?

## 군산시가 직접 추천하는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 6곳...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올해 설 연휴는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관광지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이에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 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고군산군도

도를 즐기는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에서 찾는 평화]**  
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은파호수공원, 자연과 여유가 가득한 군산의 힐링 명소]**  
은파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은파호수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원 내에는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산책을 하며 호수와 주변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여 많은 인기가 있는 은파호수공원은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 새하얀 눈이 내린 설경 또한 훌륭하여 사계절 내내 경관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과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의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지점이기도 하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등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어 근대역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도 추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미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명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 진관]**



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림 역)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기도 한다.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

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뿍 누리길 원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쫄면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

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산업 육성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라인교 같은 아찔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경암동 철길마을



비응마파지길



은파호수공원



**2025년, 을사년!**  
**꿈과 희망이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김제시의회